

# 국내 LED산업 '한 눈에'

### 14~16일까지 대구 엑스코서 '2017 대한민국 LED산업전' 국내외 200개 기업 참여 스포츠·ICT 등 최첨기술·제품 선봬

국내 LED산업의 발전과 ICT기업의 융합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2017 대한민국 LED 산업전'과 '2017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가 14일부터 16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다.

올해 12회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주관으로 국내외 200개 기업이 700여개 부스로 참여, 스포츠·ICT,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IoT), 드론, 발광다이오드(LED) 등 ICT와 LED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LED산업전에서는 '아이디어&디자인 조명관', '스마트 LED 특별관', '해외수출상담회' 등 차별화되고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품목은 실내외 조명과 농생명 조명, 메

디바이오 조명, 해양수산 조명 등 일반 조명과 조명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인 제품들이다.

부대행사로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LED정책, 지자체별 LED 구매 및 보급 계획, 우수사례 발표 등도 차례대로 진행된다.

같은 날 열리는 '2017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의 특화 산업으로 추진되는 스포츠 산업과 ICT 융합 제품이 전시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경북SW융합센터,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등 국내 ICT 지원 기관들이 기업과 함께 공동관을 꾸린

다. 해외 기업으로는 중국 칭다오시의 ICT 기업 12개사 관계자가 참가, 국내 기업과 비즈니스 상담을 한다. 또 대구TP 스포츠융복합 산업지원센터 주관으로 스포츠 융·복합 관련 21개 기업이 14일 별도로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인공지능(AI), IoT, 스포츠 ICT, LED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이슈를 주제로 한 ICT 융합 콘퍼런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전시 관계자는 "LED산업전은 발주처와 기업, 일반 소비자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양방향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LED산업계가 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이루려고,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승교 기자 kimsk@

## 필립스라이팅, 그랜드 엠베서더에 스마트조명 '휴(hue)' 적용

### 벽에 부착된 QR코드 개인 스마트기기로 스캔 객실 조명 제어

글로벌 조명기업 필립스라이팅코리아(대표 김문성)는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그랜드 엠베서더 서울 어소시에이티드 워드 풀만에 스마트 조명 '휴(hue)'를 적용했다고 11일 밝혔다.

필립스의 휴는 객실 사물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아이스테이(iStay)'를 기반으로 이그제큐티브 플로어인 호텔 16층의 25개 모든 객실에 적용돼, 투숙객들에게 혁신적인 사물인터넷(IoT)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필립스와 국내 대표 호텔 기업 엠베서더 호텔 그룹은 올해 2월 IoT 플랫폼 전문기업 인디코어사와 함께 전략적 제휴(MOU)를 맺고, 호텔 내 객실에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호텔 솔루션 '아이스테이(iStay)' 사업을 추진해왔다.

투숙객들은 휴가 자랑하는 1600만 가지 색을 직접 제어할 수 있으며, 기상·취침·업무·휴식·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테마에 맞춰 조명을 직접 세팅 할으로써 고객 친화적인 숙박 경험을 누릴 수 있다.

가정 내에서 휴를 사용할 시 스마트 기기에 앱을 설치한 후 조명기구들을 등록해야 한다면, 그랜드 엠베서더에서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벽에 부착된 QR코드를 개인 스마트기기로 스캔해 투숙객이 간단하게 객실의 조명을 제어할 수 있다.

조명뿐만 아니라 전동커튼·객실온도 및

고객요청 사항에 대한 접수까지 가능한 완벽한 IoT 스마트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편의와 경험을 극대화했다.

호텔의 객실관리팀 또한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또 호텔 로비와 통로 등 호텔 전체 다양한 공간의 조명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에너지 사용량 및 비용도 측정 가능해 유지 관리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조명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전구 교체만으로 스마트 시스템 구현이 가능해 경제적 부담도 낮췄다.

김문성 대표는 "국내 굴지의 호텔 기업 엠베서더 호텔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휴의 적용 가능성을 상공간으로 확대하고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호텔 투숙객들이 객실 내 가장 중요한 서비스 요소 중 하나로 조명을 꼽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해봤을 때 휴의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랜드 엠베서더 서울 어소시에이티드 워드 풀만에 적용된 필립스의 휴(hue)와 기타 객실 서비스들은 14층에 위치한 쇼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필립스라이팅의 LED 조명과 솔루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필립스라이팅코리아의 홈페이지(lighting.philips.co.kr)를 방문하

## 동부라이텍, 선박·항만용 LED조명 사업 진출 나서

동부라이텍이 선박 및 항만용 LED 조명 사업에 진출한다.

동부라이텍은 11일 선박용 조명분야의 양대 기업 중 하나인 극동일렉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동부라이텍의 경우 기존 산업용 LED조명 분야에 이어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 및 항만용 LED조명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극동일렉콤은 형광램프나 방전램프와 같은 전통조명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선박용 조명에 LED 조명 라인업을 강화함으로써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동부라이텍 관계자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용 LED조명은 극한의 환경을 극복하면서 에너지 절감해야 하는 특수조명인 만큼 그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광효율과 전기적 안정성을 갖춘 제품을 개발할 것"이라며 "양사가 협력해 국내외 해양산업조명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갈 것"고 밝혔다.

거나 소비자센터(02-591-0223)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교 기자

## (7) 비츠로엔파트너스 빛을 디자인 하는 공간



"비츠로엔파트너스는 1세대 조명 디자인 회사가 가져야 할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많은 디자이너 지망생들이 가진 '디자인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편견을 깨뜨리고 싶어요. 단순히 많은 일을 하겠다는 뜻보다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싶습니다."

## 조명 디자인 분야 리딩기업, 1세대 사명감으로 창작물 가치 인정받는 토양 만드는 데 주력할 것

비츠로엔파트너스(대표 고기영)는 1998년 조명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뚜렷하지 않을 무렵부터 업계를 개척해 온 1세대 기업이다. 조명 디자인 분야를 개척했으며 업계에 획을 그을만한 프로젝트를 맡아 업역 확대를 이뤄낸 리딩 기업이기도 하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곳은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미디어파사드 작품이다. 비츠로는 건축물에 부여할 수 있는 디자인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움직이는 조명 시스템을 설치, 미디어아트와 조명을 결합해 한 단계 진화한 경관조명을 구현해 냈다. 고기영 비츠로엔파트너스 대표는 건축물을 사람과 비교하다보니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사람도 매일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미지를 바꾸는 것처럼 건축물도 다양성을 부여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을 접목시켰다. 당시 아웃도어 조명은 풀을 세우고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비츠로는 풀을 전부 제거하고 지상의 등기구를 없애 뒤 나무와 건물에 조명을 직접 비추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트렌드를 변화시켰다.

고 대표는 그동안 걸어온 길을 되짚기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업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털어놨다.

"먼저 조명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조명만 다룬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공간 전체를 디자인하면 서 빛을 하나의 재료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건축과



없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해 왔죠. 그런 고민에서 나온 해결책을 적용한 프로젝트가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미디어파사드 작품이었습니다. 당시 미디어파사드를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었지만 이를 적용한 사례가 적었다는 게 문제였죠. 하지만 적용한 이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회적 수준과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해 왔던 노력이 빛을 발했던 것 같아 뿌듯했던 순간이었죠."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나인브릿지 골프클럽도 비츠로가 내세우는 대표 프로젝트 중 하나다.

비츠로는 나인브릿지 경관조명을 설계하며 업계

환경, 조명 등 공간을 꾸밀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배치되면서 조명으로 이를 더욱 빛나게 해 준 것이죠. 업계 전체가 이런 공감대를 갖고 인식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디자인은 정상적인 대가를 받기 힘든 직종으로 인식돼 있었다. 이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리딩기업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라이팅디자이너를 배출할 수 있도록 많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꾸준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준 비츠로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승교 기자

# 고천정용 고출력 다운라이트

### 전제품 디자인등록 및 특허

- 교회, 체육관, 고천정 실내 사용
- 메탈 250W → 100W 대체
- HQI 150W → 80W 대체
- 기존 조명 교체시 기존 조도 2배 이상 향상



입출 방열판 타입 10" 80W, 100W, 120W



입출 방열판 타입 8" 60W, 80W, 100W

### 후면 개방형



공장등, 투광등, 다운라이트 전문기업  
**루스 LED**

국내산/삼성 LED 칩/3년 무상보통/KS인증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269-3  
Tel. 032-578-6726 / Fax. 032-578-6727  
www.luztech.co.kr E-mail. artix2000@nate.com

